

서울시내 초등학생들의 음주에 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문 정 순, 양 수, 송 경 애, 박 선 남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초등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초등학생들의 효과적인 음주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 5개교의 4, 5, 6 학년 630명을 대상으로 음주에 대한 지식 13문항과 태도 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대상학생들의 음주 경험률은 55.4%이었으며 이중 즐겨 마시는 학생은 1.9%이었다.
2. 대상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지식정도는 총 13점 만점에 평균 8.41점으로, 저조하였다. 일반적·환경적 특성에 따른 지식 정도는 대상학생의 학교성적이 좋은 군과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3. 대상학생의 성인음주에 대한 태도는 버스나 전철에서 성인들의 취한 모습에 대해서는 주위에 피해를 준다는 응답자가 54.8%로 가장 많았고, 학생들의 성적이 좋은 경우,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운 경우, 아버지 학력이 높은 경우, 부모의 관심이 많은 경우에 성인들의 취한 모습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고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의 음주에 대해서는 안 마셨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51.6%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 경험자, 부모가 음주자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집에서 성인의 음주에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나 선배의 음주는 말린다는 학생이 가장 많아서 55.0%였다. 음주 비경험자가 경험자보다 친구나 동료의 음주에 더 관대하였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학교생활이 좋을수록, 부모의 관심이 많을수록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속의 음주장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었다가 65.3%로 가장 많았다. 음주 경험자, 부모가 음주자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 보다 대중매체 속의 음주에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이 힘들수록, 부모의 관심이 낮을수록 음주장면에 더 현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음주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태도가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